



보호자로 생명에 대한 책임·의무감은 필수



고양이·특수동물 가족맞이

냥냥이도 가족구성원 동의 속 함께 할 환경 갖춰 나가야

포유류·파충류·조류 등은 사전 지식 숙지 후 맞이할

4-5살 남짓의 여자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나도 동생을 만들어달라”고 떼를 쓰고 조른다. 이에 난감한 표정을 짓던 부모가 아이에게 반려동물을 안겨주자 아이는 동생이 생겼다며 기뻐한다. 최근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한 자동차 회사의 광고 줄거리이다. 이후 반려인의 87.9%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의 문구가 크게 뜨면서 광고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소중한 반려동물을 처음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다. 특히 어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함께 하게 될지에 따라 준비하고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천차만별이다. 비교적 보편적인 반려동물의 '개'보다 자료가 적은 '고양이'와 '특수동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거나 반려동물로 맞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냥줍' 또는 '집사로

간택당했다'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를 사전 계획 없이 집으로 들이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실제로 사람에게 친화적인 길고양이 또는 길 잃은 길고양이의 새끼들을 사전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혹시나 사전계획 없이 고양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들이게 됐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과 고양이를 위해 최소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①고양이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새끼 고양이의 경우 1개월 내외의 나이가 되면 부드러운 습식 사료, 펫 밀크 등을 스스로 먹을 수 있으나, 1개월이 채 안된 새끼 고양이라면 전용 분유와 젖병을 이용해 인공포유가 필요할 수 있다.

②고양이를 위해 안전하고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 고양이용 모래를 채운 화장실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바뀌면 불안해하거나 경계심을 보일 수 있으니 최대한 스트레스가 덜 하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③고양이의 건강상태 확인 등을 위해 빠른 시일 내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양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정 질환들은 집안의 다른 고양이 또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제주도에서는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므로, 혹시 보호자가 있는 고양이는 아닌지 등을 병원에서 마이크로칩 확인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④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랜 시간 함께 할 반려묘이기 때문에 기존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 고양이 털에 대한 알러지 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고양이와 함께 지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수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할 때에도 개와 고양이 못지않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올바른 정보를

구하는 것이 더욱 쉽지 않다. 따라서 입양 전에 동물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물품과 용품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아울러 가까운 곳에 특수동물을 진료하고 치료해주는 동물병원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다.

①중·소형 포유류=토끼, 기니피그, 페렛, 고슴도치, 햄스터 등의 중 소형 포유류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경우 각 동물에 맞는 전용 사료와 사육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끼, 기니피그 등의 초식동물들은 소화기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잘못된 음식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파충류=뱀, 도마뱀, 거북이 등의 파충류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 온도를 맞춰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 제한된 사육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각 종에 맞게 UV 등의 설치, 알맞은 종류와 양의 먹이 공급, 적절한 바닥재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③조류=조류는 파충류처럼 변온 동물은 아니지만 반려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앵무류는 열대 지역이 고향인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 조류는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빨라 며칠만 제대로 먹이를 못 먹어도 컨디션이 빠르게 안 좋아진다. 비상 시 에너지를 공급해줄 수 있는 조류용 영양식을 미리 준비하고 강제 급여 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④반려동물의 귀여운 외모와 행동에 마음이 흔들려 충동적으로 입양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호자로서 작은 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마음의 준비가 우선돼야 반려동물과 진정한 가족이 돼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김윤기·제주키움동물병원장>

영화觀

여름의 영화, 영화의 여름

매번 겪는 일이지만 참 신기하다. 얼마 전까지 꽃들이 흐드러지던 오월이었는데 유월이 되자마자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변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마에선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한다. 계절이 이렇게 빠르다. 철마다 제철의 과일과 야채를 먹고 입지도 않을 봄옷을 사며 에어컨 커버를 씌워야 할 지, 전기 장판을 창고로 넣어야 할 지를 고민하게 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 그 반복은 매우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때론 그 덕에 내가 맞이하고 있는 계절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볼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한다. 나는 이 반복을 재미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 재미를 더하고자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 중 하나가 제철영화를 보는 일이다. 이를테면 겨울이 찾아오면 나는 '러브레터'를 즐겨 봤었는데 작년부터는 '유희에게'가 겨울의 영화로 추가됐다. 창 밖으로 내릴 눈을 기대하면서 눈이 가득한 겨울의 영화들을 다시 보는 일은 꽤 낭만적인 일이다. 봄에는 가와세 나ومی 감독의 '양: 단팔 인생 이야기'를 본다. 흠날리는 빗꽃의 아름다운 꽃그림자와 대배우 키키 키린의 따뜻한 미소가 싱그러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영화다. 거기에 스크린 가득 펼쳐지는 달콤한 단팔의 공감각적 즐거움까지 더하니 봄의 기분 좋은 나른함이 가득한 영화다.

그렇다면 여름의 제철영화는 뭐가 있을까. 여름은 영화에게 특별한 계절이다. 짧고 뜨겁고 강렬한 그래서 늘 폭발 직전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이 계절은 로맨스 영화들이 폭죽처럼 터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더티 뎀싱'은 여름, 춤사위에 녹아든 매혹과 연정을 담아낸 대표적인 여름 영화다. 여름을 맞아 떠난 낯선 곳에서 만난 소녀의 거의 모든 감정들이 빠르게 담긴 이 영화에는 동경과 설렘이 몸의 언어로 파도친다. 만들어진 지 수십년이 지난 작품이지만 제철 여름 영화가 지녀야 할 감정들을 결코 녹슬지 않은 보석 같은 여름 영화다. 그리고 몇 해 전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라는 여름 영화의 클래식과도 같은 작품이 개봉했다.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은 원작인 소설의 제목인 '그해 여름 손님'처럼 그 여름 열 일곱 소년에게 찾아온 첫

사랑이라는 눈부신 손님과의 여름 한 때를 담고 있는 영화다.

첫사랑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고를 그려내는 데에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한 몫을 했다. 이미 '아이 엠 러브', '비거 스피드 레시'라는 전작을 통해 여름의 열기를 감각적으로 스크린에 옮겨왔던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솜씨는 여전하다. 여름 바람을 타고 춤추듯 움직이는 초록의 잎사귀들, 여름의 햇살을 그대로 머금은 아미 해머의 참말이는 금발 머리카락 그리고 성마른 소년의 조바심 가득한 마음을 팔팔하게 보여주는 티모시 샬라메의 맑은 눈동자. 감독은 두 인물의 사랑이 익어가는 과정을 섬세하고 과감하게 따라간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사랑 영화에서 말을 아끼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조금은 뜨겁고 습하고 하지만 그 끈적임이 싫지 않았던 열병의 시작 그리고 온 몸을 관통하는 한 여름 소낙비같은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결국은 사랑의 한 철이 지난 후 소멸되는 관계를 오롯이 지켜보는 이 사랑 영화는 간곡하고 아름답다.

여름이라는 한 철의 뜨거움이 지나기 전에 제철 영화들을 찾아보아야겠다. 영화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설 때 후하니 얼굴에 닿을 여름의 뜨거움이 조금은 낭만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싫지 않을 것 같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

제주시 공항로1길 14 (웅담2동 1538-3) T. 064) 713-7000